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혁명의 고향군, 백두산아래 첫동네인 삼지연군을 세상에 들도 없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레년에 없는 폭염과 열풍속에 울해에만도 두차례나 군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또다시 삼지연군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전체 건설자들을 1단계 공사결속을 위한 보다 큰 위훈창조에 불려일으키시기 위하여 찬눈을 맞으시며 조국의 북변 삼지연군을 세번째로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군 읍지구건설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읍지구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 공공건물들을 돌아보시면서 지난 8월에 와보았을 때 골조공사가 한창이였는데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대부분 완공단계에 들어섰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삼지연군이 우리 당이 바라는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황홀한 자태를 드러냈다고 기쁨을



행한 삼지연군건설실태와 자재, 로력보장실태, 물자수송실태를 료해하시고 공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고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내각과 삼지연군건설지휘부에서 삼지연군안의 모든 대상건설을 2021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것으로 계획하고있는데 당의 의도와는 다르다고, 당에서는 건설을 3단계로 나누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기간안에 끝낼것을 구상하고 바라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창건 75돐을 맞는 2020년 10월까지 삼지연군건설계획을 앞당겨 끝내는것으로 다시 계획을 짜고 무조건 완수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2020년까지 삼지연군건설을 끝내는데서 다음해가 판건작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읍지구건설은 매년도까지 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완공된 살림집에 들리시여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을 비롯한 살림집의 구성구석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을 손색없이 잘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군건설에 참가한 전체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이 북방의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에서도 불굴의 정신력과 드센 공격전으로 날마다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며 백두산천치주변의

건설대상들과 읍지구의 공공 및 산업 건물, 살림집건설, 도로공사를 비롯하여 올해 계획된 건설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재까지 진

전무결하게 완공하며 기타 대상공사들을 다그치기 위한 공정별, 순차별, 단계별, 년차별목표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설정하고 국가적인 력량을 집중하여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